

두 명의 사도, 한국을 축복하다



두 명의 사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쿠엔틴 엘 쿡 장로가 한국을 방문했다. 홀런드 장로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2월 18일에 한국을 찾았던 쿡 장로는 20일에 미국으로 떠났다. 십이사도 두 명이 2주에 걸쳐 차례로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월의 둘째 주와 셋째 주를 지나는 동안 한국의 성도들은 영적인 행복을 맛보았다.



왼쪽: 부산에서 모임을
끝낸 후 이야기를 나누는
홀랜드 장로와 래스벤드
장로.
오른쪽: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을 마치고 악수를
하는 홀랜드 장로.

홀랜드 장로와 쿡 장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했다. 특히 쿡 장로는 모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한강을 보고는 지난 2009년에 열린 YSA(전 세계 한인 청년 대회)를 회상하며 한국 청년들의 안부를 물었다. 한국 성도들도 온 마음으로 홀랜드 장로와 쿡 장로를 환영했다. 때로는 잘 준비한 합창으로, 때로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때로는 말없는 미소와 인사로 주님을 대신해 한국을 찾은 두 명의 사도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여러 차례 있었던 모임은 모두 영적이었다. 많은 회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연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홀랜드 장로는 자주 눈가를 훔쳤고, 쿡 장로는 잔잔한 미소로 눈물을 대신했다. 두 장로는 말씀을 마치며 한국을 축복했다. 한국에 안전과 평화가 깃들기를, 한국 회원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한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원했다.

주님의 사도가 지닌 신권 권능이 거대한 손이 되어 한국의 머리 위에 올려졌던 2월의 그 날들을 소개한다.

절대,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랜드 장로는 지난 2월 12일에 부산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도 함께였다. 하루 먼저 한국에 도착한 최윤환 장로와 환영하기 위해 나온 부산 스테이크 회원들이 홀랜드 장로 일행을 맞이했다. 홀랜드 장로는 공항에서 바로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로 향했다. 부산 선교부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부산이 한국 복음 전파의 요람이라는 것, 즉 부산은 1950년대 당시 후기 성도 미군들과 김호직 형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곳이며,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곳이라는 사실을 홀랜드 장로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복음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선교부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은 한마음으로 홀랜드 장로를 환영했다. 부산은 물론이고 마산과 대구, 그리고 울산과 경주에서도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휴가를 내고 참석한 형제도 있었다. 그렇게 140명이 모였다. 홀랜드 장로는 이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값진 일을 우선으로 추구하라며, 가정과 교회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모임이 끝난 후

홀랜드 장로는 참석한 형제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포옹을 나누었다. 그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홀랜드 장로는 각자의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날인 2월 13일, 홀랜드 장로는 창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고, 래스벤드 장로는 대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창원 스테이크는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창원 스테이크가 그 이름을 바꾼 곳으로, 스테이크 안에서는 한창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원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한 홀랜드 장로 부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한복을 입고 꽃을 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었다. 홀랜드 장로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예배실에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조용히 앉아 주님의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임 시작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경전을 읽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회원도 많았다. 얼마 후, 누군가가 “오십시오.” 하고 외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난 500여 명의 회원들은 홀랜드 장로가 연단에 앉아 감사하다며 손짓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첫 순간부터 마지막 폐회까지 예배실 안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영이

회원들은 홀런드 장로 부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가득했다.

창원 스테이크의 김충석 회장은 제일 먼저 연단에 올라 “홀런드 장로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회장의 눈가는 촉촉했다. 그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주님께서 그 정원을 거니십니다.”라는 간증을 마지막으로 연단에서 내려왔다. 부산 선교부의 제닝스 회장은 선교 사업에 대해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세에서는 함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닝스 회장에 이어 연단에 오른 구본경 자매는 따뜻한 목소리로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 여러분에게”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 자매는 “청소년들이 간증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윤희 장로의 말씀도 이어졌다. 최 장로는 먼저 홀런드 장로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1977년에 홀런드 장로가 서울을 찾았을 때, 회원 중 한 명으로 모임에 참석했던 최윤희 장로는 선교 사업에 대해 강조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었다고 설명했다. 최윤희 장로는 “홀런드 장로님께서 주님의 종이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홀런드 장로는 말씀을 하기 전 직접 네 명의 회원을 지목해 간증을 듣고 싶다고 했다. 청년 한 명과 독신 형제 한 명, 대제사 형제 한 명이 연단에 올랐다. 그리고 다섯 자녀의 어머니이자 대회 중에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느라 분주했던 최경희 자매도 단상으로 함께 올라왔다. 최 자매는 연단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홀런드 장로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한 달간 연차 대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찾아 읽으며 준비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또한



위에서부터: 대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래스번드 장로와 스티븐슨 회장; 창원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한 홀런드 장로 부부; 부산 선교부 대회에 참석한 홀런드 장로와 래스번드 장로; 함께 촬영을 한 최윤환 장로, 배덕수 장로, 홀런드 장로, 래스번드 장로, 스티븐슨 회장.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회원들이 최경희 자매가 보여 준 겸손과 모범, 간증에 눈물을 흘렸다. 홀런드 장로는 흐느끼는 최 자매를 조용히 안아 주었다. 홀런드 장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홀런드 장로는 이날 대회에서 특별히 청소년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말씀을 했다. 그는 “확고한 간증을 가진 데다가 나이도 많은 제가 왜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한 간증과 지식을 젊은 여러분이 가지기 전까지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교회에 머무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젊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절대, 절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제 삶을 바쳤습니다.”

홀런드 장로의 말씀이 끝나고 스테이크 대회를 마친 후에도 영적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날 저녁 홀런드 장로는 부산 선교부 지역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하는 특별 모임에 참석했다. 800여 명의 회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다. 수정 와드의 예배실과 활동실은 물론이고 2층의 공과 방까지 회원들로 가득했다. 다른 지역에서 회원들을 싣고 온 관광버스

창원 스테이크 회원들.



넉 대가 수정 와드 담벼락 옆으로 길게 늘어섰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가졌던 모임 중에서 이번 모임에 가장 많은 회원이 모였을 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얀 옷으로 맞춰 입은 울산 지방부 합창단은 힘찬 찬송으로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부드럽고, 강렬하면서도 따뜻했다. 합창 단원 중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연주하는 청소년들도 마참가지였다. 제일 먼저 연단에 오른 래스번드 자매도 “음악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래스번드 자매는 한국어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은 축복입니다.”라고 간증했다. 래스번드 장로는 선지자와 시온에 대해 말씀했다. “이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분들 중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 6세대 전에 교회에

가입한 제 조상들은 시온에 모이기 위해 유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온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와드, 스테이크가 바로 시온입니다.”

합창에 대한 찬사로 말씀을 시작한 홀런드 자매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홀런드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라고 속삭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간증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홀런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지상에 남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행했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적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기적 또한 멈추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시지 않아도 어부와 세리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 적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홀런드 장로는 월요일인 2월 14일 부산 선교부 대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났다. 홀런드 장로가 한국을 떠난 날, 부산에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도로는 붐비고 사람들은 발이 묶였다. 눈을 볼 기회가 자주 없는 부산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즐거워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소리 없이 내리던 눈이 홀런드 장로가 선사한 선물일지 모른다고. ■

복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십시오

쿠 엔턴 엘 쿡 장로는 홀런드 장로가 떠난 뒤 나흘 후인 2월 18일에 김포 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았다. 최윤환 장로도 동행했다. 쿡 장로는 도착하자마자 기자 간담회가 진행될 프레스센터로 향했다. 한국 공보위원회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는 유력 일간지 기자 7명이 모였다.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십이사도 중 한 명인 쿡 장로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공보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교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자들은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쿡 장로에게 물었다. 다양한 질문들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쿡 장로는 기자들에게 “이 교회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한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신앙을 강화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법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한 기자는
간담회가 끝난 후 “교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쿡 장로님에게서 선한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쿡 장로는 기자 간담회가 끝난 후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열린, 회원과의 특별 모임에 참석했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와드에는 1,3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다. 주님의 사도가 온다는 소식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온
회원들이 많았다. 아름다운 찬송을
선사한 합창단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저녁마다 모여
합창을 준비한 회원들은 1,300명
모두의 마음 속에 뜨거운 열을
불러일으키는 찬송가를 불렀다.

구본경 자매는 연단에 올라
자녀에 대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말씀했다. 그 자신도

세 자녀의 어머니인 구본경 자매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최윤희 장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온전하고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씀한 뒤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영원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쌓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쿡 자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졌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했다. 이어서 쿡 자매는 청소년과
초등회 어린이들을 향해 네 가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했다. “본부 청년
회장단이 청년들에게 전한 네 가지 할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경전 읽기,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미소
짓기, 계명 지키기입니다.” 또한
쿡 자매는 가정의 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연사는 쿡 장로였다. 그는
연단에 올라 제일 먼저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재작년 8월에
YSA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국의
경치도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또한 쿡
장로는 이어진 말씀에서 회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쿡 장로.





왼쪽부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쿡 장로와 최윤환 장로, 그리고 7대 일간지의 기자들과 공보위원들; 영등포 와드에서 말씀을 하는 쿡 장로와 쿡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쿡 장로가 제시한 방법은 세 가지였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와 ‘복음을 나누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기.’ 쿡 장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기쁨을 얻는 데 장애를 겪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됩니다. …… 우리가 복음에서 느끼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평안을 우리 주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모범이 되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왔는지 말해 주십시오. ……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는 인생에서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모임이 끝난 후 쿡 장로는 자신을 향해 일어서 있는 회원들에게 직접 다가갔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회원들은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사도를 보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쿡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들렸다. 쿡 장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원들과 눈을 맞췄는데, 그때마다 회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인 2월 19일, 쿡 장로는 대전 선교부 대회를 위해 대전으로 내려갔다. 대전 선교부에 모인 80여 명의 선교사들은 모임 시작 1시간 전부터 찬송가를 부르며 쿡 장로를 기다렸다. 그들은 모두 쿡 장로와의 만남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바라던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쿡 장로는 말씀과 질의응답을 통해 선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선교사 대회 후에는 쿡 장로와 대전 선교부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처음에 모임을 계획할 때만 해도 구제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110명의 신권 지도자가 모였고, 함께한 이들은 모두 이 모임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잘 알지 못했던 원리들을 확실히 알게 되는 특권을

누렸다.

쿡 장로는 안식일인 2월 20일에는 청주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1972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 청주 지역에 십이사도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청주 스테이크 회원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주님의 사도를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모여든 450여 명의 회원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런 회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청주 스테이크 청소년 합창단이었다. 예배실 중앙에 자리 잡은 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긴장한 듯 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쿡 장로를 기다렸다. 쿡 장로의 입장과 동시에 청소년 합창단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합창했다. 청소년들의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 청주 스테이크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대신해 쿡 장로에게로 전달되었다.

이 모임에서 청주 스테이크의 정진용 회장은 “선지자가 이끄는 이 교회는 참됩니다.”라고 간증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선교부의 퍼니스 회장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국 장로는 서울에서의 모임 후 대전과 청주로 내려가 회원들을 만났다. 회원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국 장로를 환영했다. 특히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도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라고 간증했다.

최윤희 장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님의 방문을 통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까지 열게 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국 장로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 자매는 청소년 합창단의 찬송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국 자매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한 신앙을 지니게 됩니다.”라고 말씀하며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연사였던 국 장로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선지자의 말씀은 미래에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선지자께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 장로는 “가족을 강화하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며, 간증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회가 끝난 후 청소년 합창단은

‘EFY 메들리’를 합창했다. 국 장로는 합창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연단을 떠나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이나 노래를 듣는 회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국 장로는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사랑을 전한 후 한국을 떠났다.

북아시아 지역회장단의 최윤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두 분의 사도님이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이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할 때 그 축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북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들에게 드리는 축복 메시지- 일본 나고야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로와 자매 선교사 여러분, 이제 북아시아 지역에서 보냈던 특별한 2주 동안의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슬프게도, 나고야에서 만난 선교사 여러분이 이번 여행에서 만나는 마지막 선교사들입니다. 쿡 장로님과 래스밴드 장로님, 지역 회장단,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지 못한 몇몇 선교부는 다음 번 여행을 통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우리가 만난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음을 느꼈기에, 저는 이곳 나고야 선교부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축복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해야겠다는 느낌에 따라, 제가 지닌 신권과 우리를 이곳 아시아로 불러 모아 준 사도의 직분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업의 긴박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 인도받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갖게 된 걱정이나 집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 위안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 서도록 천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 섬나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국민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영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마음 속에 진리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며,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이 선교사들을 당신이 보내신 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나라의 경제를 축복하며, 당신의 이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축복합니다. 이 나라들의 사회와 문화에 안정과 평온이 지속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회원들과 신권 지도자들과 구도자들과 저활동 회원들을 축복하며, 사도들의 방문을 계기로 이 나라들에 새로운 추진력이 생기고 이 사업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제 이미 과거에 그러했듯이, 저는 열쇠를 행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더 큰 성취와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공은 하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는 길을 준비할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수는 있지만, 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순결하고 합당하도록 서약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과 해 돋는 나라 일본,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앞에 이 복음이 새롭게 떠오르는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권능과 위대한 영광을 통해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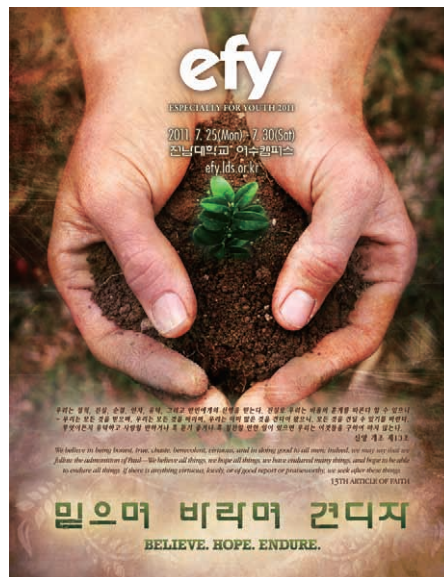
EFY 포스터와 주제

2011년 EFY의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이번 포스터는 흙을 뚫고 올라온 푸른 새싹과 그 새싹을 감싸고 있는 두 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새싹이 움터 나오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믿고 바라고 견디다'면 신앙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포스터와 함께 소개된 EFY 주제는 다름 아닌 신앙개조 제13조이다. 후기 성도들의 가치관과 생활상을 대표하는 이 주제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EFY의 대회장인 오희근 장로는 청소년들이 신앙개조 제13조를 상고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EFY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EFY에도 SMYC 때처럼 엄격한 표준이 요구된다. EFY 포스터와 함께 선보인 '여러분의 표준은 어떻습니까?'라는 용모에 관련된 포스터는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표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작년 SMYC에서도 복장 표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이 많았다.

하지만 스스로가 표준을 높이고 순종했을 때 큰 간증과 행복을 느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신앙개조 제13조-

한편, EFY의 전체적인 일정도 발표되었다. 이번 EFY 역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열리며, 기간은 2011년 7월 25일에서 30일까지 5박 6일이다. 참석 대상은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90,000원이다. EFY의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efy.l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 생은 시험이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에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선택들은 의미가 크며, 어떤 선택들은 별 의미가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모두 “심판 날에 그 말씀이 이 백성에게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리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되,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그 행위가 악하든지,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모사이야서 3:24)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의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아빈아다이가 가르쳤듯이, “만인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인정할 것이다.”(모사이야서 16:1)

공의

모세의 율법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23~25)라는 ‘공의’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재판관들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분명하게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공의를 좇아 ……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만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엘마서 42:13)라고 공의의 장기적인 결과를 가르쳤다.

자비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비의 율법을 가르치셨으며, 그 율법에 따라 행하셨다. 그분의 완전한 삶과 영원한 속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비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45:4~5) 세상의 구속주께서 우리가 자비 또는 공의를 받게 될지 판단하는 열쇠들을 쥐고 계신다.

현세적인 환경 속에서 공의와 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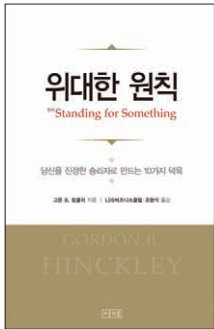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허덕이며, 의복이나 보금자리도 없이, 의료 혜택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가난이나 질병, 가족들이 겪는 불행, 기근,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주변 환경 또는 어리석은 선택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 우리는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인생에서 겪는 시험의 일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는지 자비로 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혹 내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자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금하여, 그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식에서 그에게 주거나, 나의 재물에서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벌이 마땅한 것임이라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 사람아,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 그는 크게 회개해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17~18)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은 간청과 권고로 그의 말을 끝맺는다. “또 이제 만일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라고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재물에서 서로 나누어 줌이 얼마나 마땅하냐.”(모사이야서 4:21)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설 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비를 받는다. 베냐민 왕은 신앙과 회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 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매일 기도하라고 권고했다.(모사이야서 4:8~11 참조) 베냐민 왕은 사람들이 이를 행하면,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의 죄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될 것이며 …… 너희는 궁핍에 처한 자에게 너희의 재물을 베풀 것이며, 너희는 구걸하는 자가 너희에게 올리는 간청이 헛되도록 버려 두고, 그를 쫓아내어 죽게 하지 아니 하리라.”(모사이야서 4:12~16 참조)라고 약속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서 구속의 권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마태복음 5:7)이기 때문이다. ■

‘위대한 원칙’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저서 ‘위대한 원칙(원제: Standing for Something: 10 Neglected Virtues That Will Heal Our Hearts and Homes)’이 출간되었다. 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책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뉴욕 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힝클리 회장이 평소 회원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흐르는 사회 조류에 대한 경고와,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덕목들은 사랑, 정직, 도덕성, 예절, 배움, 용서와 자비, 근면과 검약, 감사, 낙관주의, 신앙 등으로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것들이다.

생전에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던 힝클리 회장은 ‘저자의 말’에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의 백성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 이 땅의 백성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공보 사업의 일환으로 LDS비즈니스클럽이 번역하고 출간한 이 책 “위대한 원칙”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명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2명



김상동 장로
배경희 자매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 스테이크
가든 그로브 11지부
서울 성전



김진하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대전 선교부



이주연 자매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양동훈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대전 선교부



이태우 장로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부산 선교부



이수민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



추혜경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워싱턴 스포캔 선교부



이예정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부산 선교부

정정합니다

지난 호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에 소개되었던 선교사 중 정문주 자매와 장미주 자매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도시와 건물이 파괴되었다. 특히 쓰나미가 덮친 센다이 지역은 통신이 두절되어 주민들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현재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을 통해 센다이 지역의 모든 전임 선교사와 대부분의 회원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회원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방사능 유출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일본과 그곳의 성도들은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다.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지역의 모든 회원들을 향해 “일본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특별한 기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센다이와 도쿄 선교부의 모든 전임 선교사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지역의 선교부로 이동한 상태이다.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www.lds.org)에는 일본의 대지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